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 어항어촌정비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과의 일체적 정비 -

북해도 히로오정(廣尾町) 오시라베쓰(音調津)어항

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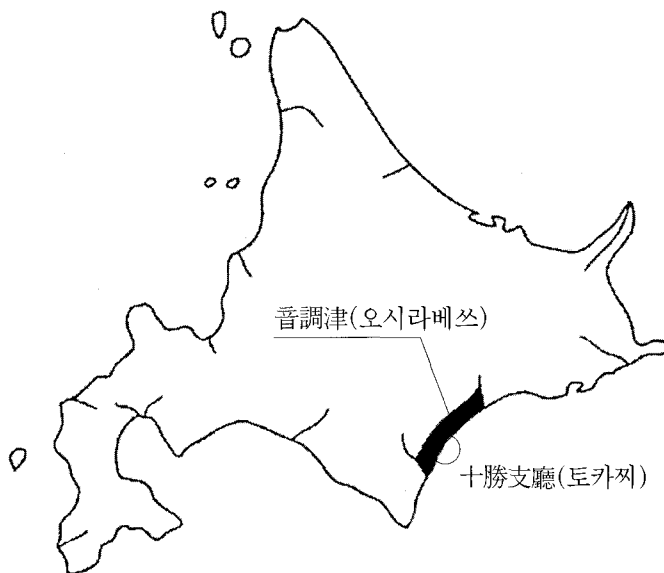
북해도에서는 지금까지 안전한 어업활동을 유지하는 어항정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어항정비, 어촌 생활환경 등을 중심으로 어항어촌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북해도 연안을 둘러싼 어업규제의 강화, 주변수역의 자원사정 악화 등 수산업을 둘러싼 정세는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어촌에서도 어업취업자 수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수산업을 유지하는 어촌지역 활력의 저하나 수산물 공급체제의 유지가 걱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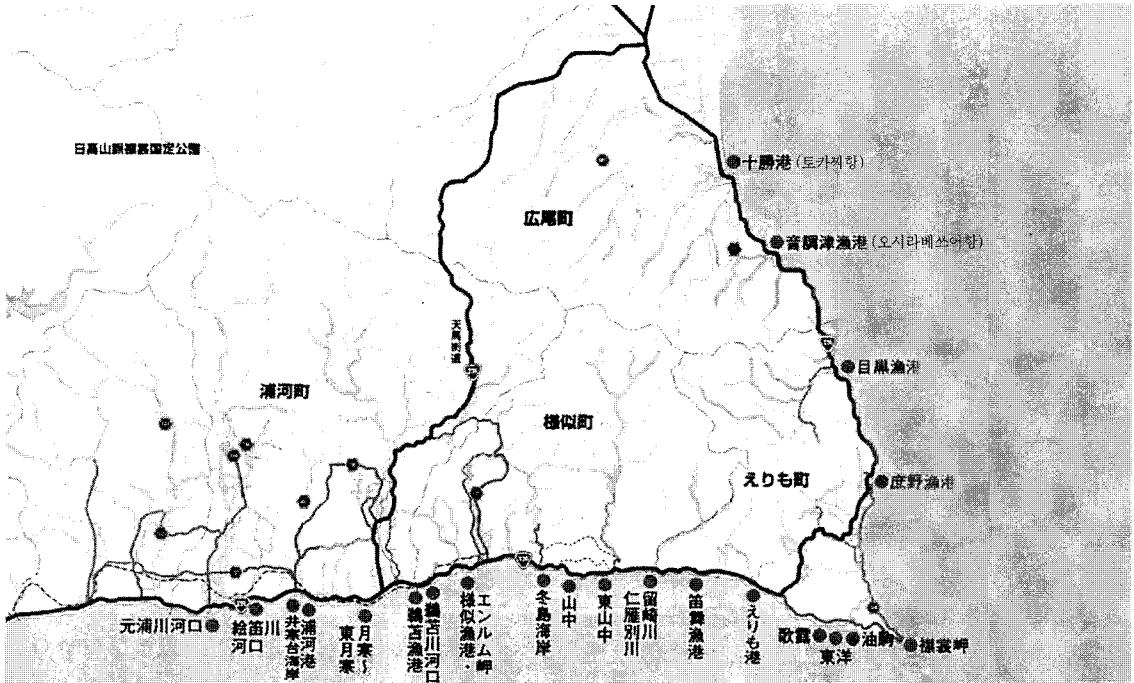
이런 실정에서 종합적인 수산기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최근의 긴급과제로 대두되어 각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여기서는 기르는 어업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수산기반 정비본연의 모습 한 예로서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과 어항어촌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사업'을 소개한다.



< 위치도 >



〈 지도 〉

히로오정 오시라베쓰 지구와 그 주변의 개요

히로오정은 북해도 동쪽 토카찌(十勝)관내의 남단에 위치하여 북쪽은 대수정, 남쪽은 에리모정과 접하고 있다.

동쪽에는 풍부한 자원을 지니는 태평양, 서쪽에는 장엄한 日高山맥을 바라보고 토카찌의 중심도시 오비히로(帶廣)시에서는 약 84km의 거리에 있다.

히로오정의 중심에는 농업왕국 토카찌의 바다 관문인 토카찌항이 있고 북해도와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토카찌항에서 북으로 가면 태평양에 접한 해양종합레저 시설인 ‘해빈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인공해빈해수욕장 해양수족과학관 캠프장 등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1〉 해빈공원

②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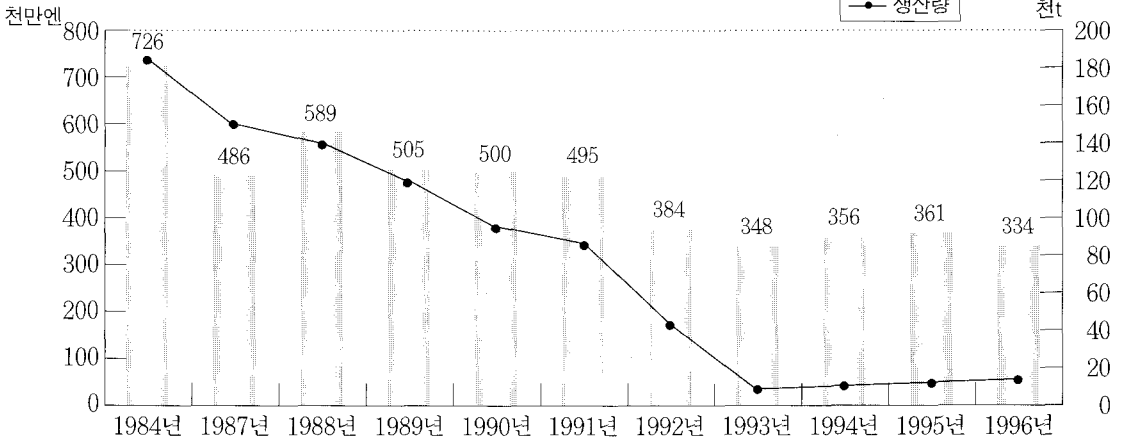
히로오정의 남쪽에 위치하는 오시라베쓰지구는 세대수 148호 중 어가호수가 91호나 되는 순 어촌지역으로 옛부터 수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히로오정 전체의 수산어획량 10,964톤 중 연어 오징어 명태를 중심으로 5,990톤을 양륙하고 있어 수산관계산업의 중요한 기지로서 자리 매김하

고 있다.

그런데 표와 같이 국제어업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어획량이 격감하고 있어 현안문제로 되어 있다.

● 생산고 추이



자료 : 북해도 수산통계

● 1996년 생산고(어업별)

어업명	생산량(t)	생산액(千円)
연어	2,378	440,537
근해저인망	2,479	377,907
명태자망	1,981	284,328
낙지	274	129,965
오징어낙시	1,106	237,956
털게	199	584,028
고둥	638	188,586
빙어	725	321,464
북방대합	62	41,069
잠수기어업	3	51,219
소형연어·송어유망	506	159,760
체조어업	290	299,636
새치성게	145	91,862
기타	178	129,661
합계	10,964	3,337,978

자료 : 북해도수산통계

● 1996년 생산고(어종별)

어종명	생산량(t)	생산액(千円)
연어	2,443	491,696
물오징어	1,655	274,973
명태	2,795	329,319
송어	468	122,790
빨간대구	239	26,675
임연수어	236	25,869
용가자미	233	68,048
빙어	434	227,420
갈가자미	217	103,082
털게	147	497,013
고둥	800	300,581
다시마	282	266,990
기타	1,015	603,522
합계	10,964	3,337,978

자료 : 북해도수산통계

**오시라베쓰지구의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
만들기 사업' 개요**

지금까지 수산기반의 정비는 어항어촌정비사업, 연안어업활성화 구조개선사업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각각 실시되어 왔으나,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과 효율화가 요구되어 1997년부터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지구는 어항 용지 등의 월파방지를 위한 동방파제 개량(높이기)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섬계 증식작업에 따라 정온역 확보를 위한 동방파제의 개

량(높이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해 동방파제(공유시설)를 개량함으로써 유기적인 시설기능의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2개년간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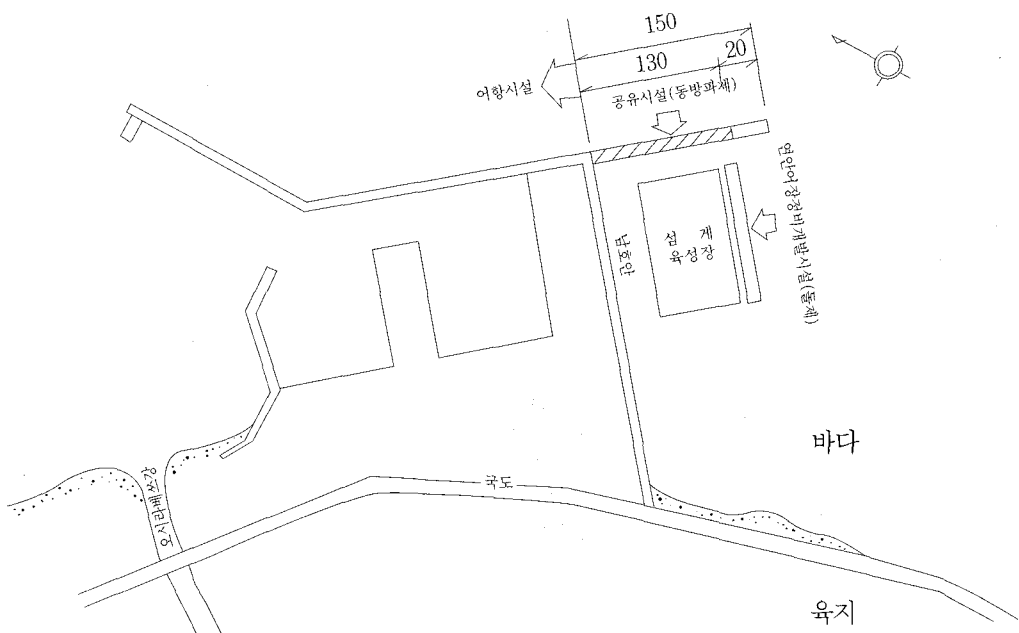
사업시설규모 내용

남쪽 호안의 월파방지와 섬계 증식장의 정온역 확대를 위하여 기존시설인 동방파제 마루높이를 +2.5m에서 2.0m 높여서 4.5m로 하고, 또 동방파제 150m중 130m를 양쪽의 공유시설로 하고 나머지

20m는 어항의 기본시설로서 정비하기로 하였다.

계획입안 및 사업실시 중 유의점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사업'을 계획·실시해 나가기 위하여 특히 유의할 사항은 △어항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의 합병시공에 따르는 기술상 지침의 우위와 두가지 사업이 요구하는 시설의 규모 등에 우위가 없는지 또는 조정은 가능한지 △비용부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병시공의 시설관리는 누가 하는지 △재해 등에 의하여 시설이 손



오시라베쓰어항(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사업)



〈사진-2〉 오시라베쓰어항 전경

상된 경우 부담법, 잠정법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복구하는지 △쌍방 단독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비한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적게 드는지.

이상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입안과 협정체결이 이루어졌다.

사업완료후의 효과와 전개 방향

본 사업은 과거에는 그 예가 없고 종래부터 점(點)적인 어항어촌정비사업에서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 등과 연계를 도

모함으로써 일부 연안역에서는 면(面)적인 종합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더 광역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보다 유기적인 시설함으로써 정온역에서의 중간육성 방류사업 등이 본격화되고 지역의 안정된 해변자원으로서 어가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어촌지역 기반조성 강화로 이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 언

최근 수산관계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대 효과분석’ ‘사업의 재평가’ ‘사업의 사후평가’ 등에 의하여 알기 쉬운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지방공공단체는 그들 정보의 공개에 소임을 다하는 동시에 ‘살아서 보람 있다’는 실감을 가지는 어항어촌정비를 추구하고 앞으로도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만들기 사업’ 등 새로운 시책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산청을 비롯하여 관계기관 여러분분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